

'땀 축구'로 날린 첫 승... 김학범호 8강 빨간불



22일 이바라키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조별리그 B조 1차전 대한민국 대 뉴질랜드 경기. 전반전 대한민국 권창훈이 상대 선수와 헤딩 경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축구 조별리그 1차전 0-1패 장신군단 수비에 번번이 막혀 25일 루마니아전 반드시 이겨야

'김학범호'가 올림픽 메달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다.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22일 일본 이바라키 현 가시마의 이바라키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질랜드와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0-1패를 기록했다.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공식 첫 경기로 이목이 쏠렸지만 '장신군단' 뉴질랜드의 높이와 촘촘한 수비에 막힌 한국은 끝내 득점에 실패, 뉴질랜드 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역대 첫 승의 제물이 됐다.

황의조(보르도)를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로 배치한 김학범 감독은 권창훈(수원)-엄원상(광주)을 좌우날개로 세웠다. 또 이강인(발렌시아)에게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기며 4-2-3-1 전술을 가동했다.

원두재(울산)와 김동현(강원)이 중원에 섰고, 이우현(전북), 정태욱(대구), 이상민(이랜드), 강윤성(제주)으로 포백이 구성됐다. 골키퍼 장갑은

송범근(전북)이 됐다.

뉴질랜드가 5-4-1 전술로 뒷문을 걸어 잠근 채 봉쇄에 나서면서 한국은 전반전 답답한 경기를 이어갔다.

황의조가 발과 머리로 선제골 사냥에 나섰다지만, 골대를 넘지는 못했다.

전반 6분 황의조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때린 오른발 슈팅이 상대 얼굴을 맞았다.

9분에는 뉴질랜드 일라이자 저스트가 첫 슈팅을 날리면서 경기 분위기가 뜨거워졌다.

전반 22분 한국이 아쉬움에 땅을 쳤다. 강윤성이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권창훈이 가슴으로 잡은 뒤 공중에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헛발질로 끝났다. 전반 41분에는 오른쪽에서 엄원상이 페널티지역 정면에 있던 황의조를 향해 정확히 공을 보냈다. 황의조도 날카로운 헤더로 연결했지만 상대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막혔다.

0-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한 한국은 후반 4분 엄원상의 슈팅으로 공세를 시작했다.

엄원상이 페널티지역에 진입해 날린 슈팅이 수비수 맞고 나온 뒤 원두재까지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골대를 비껴났다.

김학범 감독이 전반 13분 선수들을 대거 교체하면서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엄원상, 이강인, 권창훈을 동시에 빼고 이동경,

이동준, 송민규를 투입하면서 2선을 재정비했다.

그리고 후반 22분 이동경이 기대했던 슈팅을 선보였다.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이동준이 이동경에게 공을 넘겼다. 이동경이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을 선보였지만 골키퍼 바로 앞에서 골문을 지키고 있던 뉴질랜드의 '주장' 윈스턴 리드의 발에 막혔다.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뒤 후반 25분 아쉬운 실점이 기록됐다.

조 벨이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때린 오른발 슛이 정태욱의 발에 맞고 왼쪽으로 흘렀다. '와일드카드'로 올림픽에 나선 뉴질랜드의 크리스 우드가 첫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지만 비디오판독(VAR)을 통해 우드의 골은 득점으로 인정됐다. 그리고 경기가 그대로 뉴질랜드의 리드로 끝나면서 이 골은 결승골이 됐다.

이와 함께 2008년 2012년에 이어 3번째 올림픽 본선 무대에 오른 뉴질랜드(2무4패)는 한국을 상대로 첫 승을 신고했다.

충격의 패배를 기록한 남자축구대표팀은 25일 오후 8시 이바라키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루마니아와 조별리그 2차전을 갖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종목	2021년 7월							8월											
	21 수	22 목	23 금	24 토	25 일	26 화	27 수	28 목	29 금	30 토	31 일	1 월	2 화	3 수	4 목	5 금	6 토	7 일	8 월
개막식과 폐막식																			
3대3 농구																			
양궁																			
육상																			
배드민턴																			
농구																			
사이클 BMX 프리스타일																			
사이클 BMX 레이싱																			
복싱																			
아구/소프트볼																			
스포츠 클라이밍																			
사이클 도로																			
카누 슬라럼																			
카누 스프린트																			
사이클 트렉																			
다이빙																			
승마																			
축구																			
펜싱																			
기계체조																			
골프																			
리듬체조																			
트램플린																			
핸드볼																			
하키																			
유도																			
가라테																			
근대5종																			
사이클 MTB																			
마라톤 수영																			
조정																			
럭비																			
요트																			
사격																			
스케이트보드																			
서핑																			
아티스틱 스워밍																			
수영																			
테니스																			
태권도																			
트라이애슬론																			
탁구																			
비치발리볼																			
배구																			
역도																			
수구																			
레슬링																			

모유 75팩 얼려놓고 왔다... 위대한 엄마 선수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갓난아기를 두고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엄마 선수들이 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모유 수유 중인 아기를 둔 선수들에만 자녀와 동반 입국을 허용했지만, 돌봄 문제와 코로나19 우려 등으로 나홀로 도쿄에 입성한 엄마 선수들이 많다.

22일(한국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은 메달에 도전하는 엄마 선수들을 소개했다.

영국 양구 대표 나옴이 포카드(37)는 올해 2월 태어난 에밀리를 위해 모유 75팩을 얼려놓고 도쿄에 왔다.

포카드는 "일본으로 오기 전 에밀리를 위해 수 주 동안 모유를 유축했다. 매일 밤 아기가 잠든 뒤 몇 시간 동안 유축기를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에밀리가 태어났을 때 도쿄올림픽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아기를 돌보는 것은 엄마만의 일이 아니라 아빠의 역할이기도 하다"며 설득해 자신의 5번째 올림픽에 나

졌먹이 두고 홀로 입국한 엄마 거실서 조정 훈련하며 애 보고 출산 3일 전까지 사이클 타기도

오게 됐다고 밝혔다.

영국의 조정 대표 선수인 헬렌 글로버(35)는 세 살 로건과 16개월 쌍둥이 보-깃 등 세 아이의 엄마다.

글로버는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된 덕분에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버는 "아기를 가지면서 4년을 쉬었고,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나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다"며 "거실에서 레고장난감을 피해 점프 스쿼트 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집에서 운동한 덕분에 아기들에게 맞춰 훈련 프로그램을 짤 수 있었다며 "14개월 동안 쌍둥이에게 모유 수유를 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많았지만, 조정 운동을 하러 집 밖을 나서면 힘이 났다"고 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도로사이클 선수 리지 데이그먼(32)은 두 살배기 딸 올라를 남편에게 맡기고 도쿄올림픽에 출전한다.

데이그먼의 남편 필(37)은 프로 사이클 선수 출신으로, 지금은 데이그먼의 코치를 맡고 있다. 데이그먼은 "임신했을 때 나는 선수 생활을 계속하려고 했다. 임신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며 "초기 3개월은 입덧과 피로 때문에 쉬지 못했다. 가장 힘든 기간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출산 3일 전까지 사이클을 타기도 했다. 다행히 지금은 필이 코치로 전향하면서 올라를 봐주고 있다. 필은 올라가 잠들었을 때 올라인로 선수들을 지도-점검한다.

세 아이를 둔 영국의 복싱 선수 찰리 데이비스(27)는 "엄마가 되고 더 정신적으로 강해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